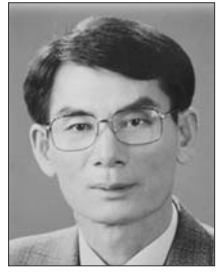


호매칼럼



이정랑 /중고고전평론가

이공대수(以攻代守)

- 공격함으로써 수비한다 -

을 막기로 했다. 그는 일반적인 방어 부서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기계 설비를 징집하여 성 위에다 방어용 활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외성(外城.-고대의 성은 흔히 안과 밖에 내성(內城)과 외성이 있다) 밑에 흙 담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적의 동정을 관찰하기에 편리하고 활을 쏘기에도 좋은 구멍을 뚫었다. 성 부근에는 북병을 두어 적을 습격하여 포로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6월 후, 적이 접근해오자 유기는 습격을 명령했고 그 결과 적의 진공을 좌절시키고 적장 두 명을 사로잡았다.

적장을 심문한 결과 성에서 30리 떨어진 백사(白沙)에 적의 대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날 밤 습격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기는 적을 혼동시킬 목적으로 모든 성문을 열어놓도록 했다. 과연 적군은 때복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활만 쏘아댔다.

유기의 부대는 방어와 활쏘기에

유리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적은 반면 적의 사상자는 매우 많았다. 금군이 퇴각하자 유기는 그 퇴로를 끊어 금의 대부대를 영하(潁河)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적군은 성에서 20리 떨어진 이촌(李村) 부근으로 퇴각하는 한편, 병력을 증강하여 재차 공격해올 준비를 했었다.

유기는 이런 동정을 눈치채고 '한 발 앞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선발제인(先發制人)'의 수단을 취하여,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용장 염충(閻充)으로 하여 5백 명의 전사를 이끌고 천동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밤을 틈타 습격을 가하게 했다. 금군은 다시 중대한 타격을 입고 30리 밖으로 후퇴했다.

이튿날 밤, 유기는 또, 다시 천동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하여 병사 1백 명을 출전시키기로 했다. 유기는 각 병사들에게 무기를 지니게 하는 외에 또 대나무로 만든 호루라기를 하나씩 지급하고 습격에 나서도록 했다.

번개가 번쩍하면 일제히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적군을 향해 달려들고 번갯불이 지나가면 일제히 엎드려 움직이지 않도록 하니, 금군은 감히 못 잡고 자기편끼리 죽고 죽이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시체가 곳곳에 널렸고 금군은 다시 멀찌감치 노파만(老婆灣)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군의 최고 사령관 김을술(金兀術)은 몇 차례 잇단 패배 소식을 접하자 몸소 10만 대군을 이끌고 개봉(開封)으로부터 지원에 나섰다.

유기는 주력군 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판단, 다시 기묘한 전법들을 구사했다. 먼저 두 명의 용사를 끌다 전투 중에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금군의 포로가 되게 했다.

김을술이 이 두 용사를 심문하자, 용사들은 유기를 가리켜 위인이 높고 다시기만 좋아하고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난봉꾼이라고 비난했다. 김을술은 적을 깔보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유기쪽은 단숨에 쳐부수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다.

유기는 김을술의 화를 돌우어 자신이 처놓은 함정으로 유인할 요량으로 고의로 사람을 보내 김을술을 자극했다. "김을술, 내가 영하를 건너와 나와 싸울 수 있다면 부교(浮橋.-뜬 다리) 다섯을 설치해 기꺼이 너를 맞이하겠다."

김을술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이 밭끝만 움직여도 순창성은 금세 함락될 것이라며, 내일 아침 강을 건너겠노라 대답했다.

유기는 정말로 영하 위에 다섯 개의 부교를 설치해 놓았다. 그와 동시에 강 상류와 금군이 강을 건너 후 점령하게 될 지역 구석구석에 독을 뿌려놓았다. 금군은 강을 건너 후 대부분 독에 중독되고 말았다. 더구나 날이 무척 더워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피로와 고통에 시달리니 전군의 사기가 완전히 처지고 말았다.

반면에 유기의 부대는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왕성했다. 유기는 적이 피곤해 있을 때 공격

하는 전형적인 전법을 취했다. 한낮이 되자 금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유기는 수백 명을 서문 쪽에서 내보내 크게 고통을 지르며 금군을 향해 돌진케 했다.

금군의 주의력이 서문 쪽으로 집중되자, 이번에는 수천 명이 예리한 칼과 도끼를 들고 남문을 나와 공격했다. 금군은 대패했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격렬한 전투의 와중에서 김을술이 몸소 이끄는 이른바 '철부도(鐵浮圖)'와 '괴자마(拐子馬)' 등 정예 부대로 유기 군대의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정예군은 열에 일곱 여덟이 희생되었다.

대세를 만회할 길이 없다고 판단한 김을술은 잔병을 이끌고 개봉으로 도주했다.

유기는 승기를 몰아 금군을 추격하여 다시 수만을 섬멸했다. 유기가 지휘한 순창 방위전은 적극 수만과 상대를 속이는 기발한 전략으로, '싸움(공격)으로 지키는 것(수비)을 대신하는' 전략을 훌륭하게 체현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장마철 차량침수 수난사고 대처법

어느덧 다음 달부터 장마가 시작하는 6월이 다가오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는 장마로 각종 피해를 입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은 차량침수 피해이다. 차량침수 피해는 어쩌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또는 안 일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사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집중호우로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과연 우리는 침착하게 차량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호우로 탑승한 차량이 침수 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주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

대로 교육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가끔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일로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차량침수 시 대처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예방법으로는 집중호우 시 하천주변 주차 금지 또는 차량이 침수 될 수 있는 장소의 운행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 만일 차량의 침수가 시작 될 경우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나와 안전한 장소 또는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침수가 진행되어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힘든 경우이다.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원인은 차량 외부와 내부의 수압 차이가 발생해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가장먼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며 창문으로 탈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창문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파손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물건을 사용하여 파괴 후 탈출을 해야 한다.

뾰족하고 단단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좌석의 머리받침을 빼서 차량의 창문을 파괴 할 수 있다.

만일 좌석의 머리받침대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일점량의

물이 차올라 외부와 수압이 같아지면 기다린다.

외부와 내부의 수압이 같아지면 차량의 문은 개방할 수 있으며 이후 차량에서 탈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또는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집중호우 수난사고! 예방법과 대응요령에 대한 당신의 관심만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원균(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산불화재 예방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자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은 산행객들의 실수와 매년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밖으로 담배꽂이를 버리는 운전자들 자주 볼수 있다. 양심을 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 정도인가 하고 아쉽기

도 하지만 만약에 버려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산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다.

이러한 담뱃불의 온도는 약 500℃ 이고 피우고 있을 때는 800℃나 되는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담뱃불로 인한 산불의 발생건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뱃불 화재의 주요원인은 운전 중 또는 보행 중 담배꽂이를 버리거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연재질로 만들어진 휴지통에 꽂조를

버렸을 때, 등산 중 흡연 후 숲속에 담뱃불을 버리는 행위 등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재발생요인이 특히 봄철에는 매우 높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부주의로 국민과 국가의 재산인 시설물과 산림이 한층의 재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다함께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 아름다운 우리들의 자연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자.

/염용태(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amaeil.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자남도프린트 (062) 943-0140. 구독료 연말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 (062) 363- 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율.....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등 문.....525-6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3647-6161
구 레...010-8697-0053

-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687-2288
함 평...010-4132-8080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667
해 남...010-3471-6542
고 흥...010-7175-3500
광 산...010-7613-4320